

그냥 쉬 청년 200만 시대... 늘어나는 니트족 해결책은?

〈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182만4000명... 2년전비 1.8% ↑
2016년 기준 OECD서 7번째 순
장기 니트족 대졸 등 고학력자 많아
“막대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소모
교육-실무 투트랙 정책 도입해야”

#.4년 전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김선형(가명·32) 씨는 더 이상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는다. 김 씨는 “학교 다닐 땐 다른 동기들처럼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됐다. 눈을 낮춰 7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이것도 떨어졌다”면서 “서른이 넘자 마음이 급해져 공채가 뜨는 대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원서를 써서 냈는데 전패했다”며 허탈해했다. 김 씨는 “학창시절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써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서류 접수도 안 한다”며 “사실상 취업 포기 상태다. 이제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어느 것도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교육-실



지난달 26일 KTX 서울역에서 코레일·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로 열린 서울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 투트랙 정책을 도입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직 활동을 접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냥 쉬었다’고 답한 구직 단념자는 18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51만2000명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니트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

들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김종욱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최근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 보고서에서 “많은 인문사회계열 대졸자들이 청년 니트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열별로 가장 낮은 수준인 그들의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 니트 중 대부분은 대졸 이상 청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OECD에 따르면, 취업된 청년층과 청년 니트들 간의 문해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관찰된 나라들도 있었지

만,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이보다는 OECD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 따라 고학력 노동공급자들이 꾸준히 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들이 고스란히 시장 밖에 적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니트 규모는 2016년 기준 178만명으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다. 연구소는 청년 니트들이 백수로 머물면서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23조8000억원에서 최대 41조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GDP의 약 1.5~2.5%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청년 니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한국뿐만이 아니다. 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유럽연합 28개국의 18~24세 청년 7명 중 한 명이 니트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독일은 학교 교육과 수습 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이원화 제도로 교육-일자리 간의 불일치 현상을 줄였다. 이원화 직업 제도의 장점은 청년층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학교-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해 실업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있다.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청년고용률이 61.6%(2014년 기준)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스위스의 직업훈련 역시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직업훈련 교육으로 약 25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실 수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산학이 긴밀히 연계된 현장 중심적 훈련이 주를 이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원화 제도로 불리는 학습-근로 병행제도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원화제도를 처럼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 학업-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초딩’에 딱!... 신학기 책가방 大戰

안전·실용성에 스타일 갖춰
인기 애니메이션과 콜라보

내년 ‘흑룡띠’들의 입학 앞둔 패션 업계가 신학기 가방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공략하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 업체들이 기능은 높이고 디자인은 다양화한 신학기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대목인 입학 시즌보다 한 발 빨리 제품이 출시된 만큼, 연말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아이들의 가방을 구매할 때 단순히 디자인이나 구성만을 보는 시절도 지나간 지 오래다. 업체들은 스타일과 기능을 다양하게 갖춘 제품으로 간간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 키즈가 대표적이다. 빈폴 키즈에 따르면 이번엔 신학기 가방 ‘라이트 캐주얼 백팩’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빈폴 키즈의 라이트 캐주얼 백팩은 무게와 가격을 모두 내린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량 소재를 사용해 무게는 600g, 10% 이상 낮췄고, 가격은 20% 내렸다.

이 제품은 스타일과 실용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빈폴 키즈는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고려해 인체 공학적 설계를 가방에 적용했다. 클래식 체크 백팩과 핑키 백팩의 경우, 척추 곡선을 따라 가방과 등판이 밀착되도록 ‘쓰리 레이어(3 LAYER)’를 적용해 목과 허리의 충격 흡수 기능을 끌어올렸다.

네파 키즈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보디가드백 삼층사’를 출시했다.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능성을 적용하고, 부모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빈폴 키즈 제품컷. /삼성물산 패션부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기능과 디자인, 색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색상을 강화한 제품인 주드 투인원 스쿨백, 캠백 스쿨백, 이드 스쿨백을 포함해 총 9종으로 출시됐다.

아이들의 니트를 충족시킬 제품도 출시됐다. 블랙야크 키즈가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와 협업을 통해 선보인 ‘신비아파트 책가방 컬렉션’이다. ‘신비아파트’는 투니버스에서 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도깨비 신비아파트, 두리남매가 귀신들의 역을 함을 풀어주는 판타지 호러 작품이다. 블랙야크 키즈는 이번 컬렉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적용했다. 캐릭터 신비를 전면에 포인트

로 활용하고, 파스텔 색상과 패턴 디테일 등을 가미해 아이들만의 감성을 제품에 녹였다.

기능성 등판을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한편, U자형 어깨 멜빵으로 무게 하중을 최소화했다. 또 가슴 벨트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야광 휘슬 버클로 제작돼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헤지스 키즈, 닥스 키즈 등은 아동 가방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생산 물량을 30% 늘렸다. 또한, 빈폴 키즈는 내년 1월 말까지 책가방 4종 세트(책가방, 신발주머니, 휴대폰 가방, 실내화)를 구매하면 15% 할인을 적용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하나로 두가지 스타일링... ‘리버시블’ 대세로

와이드앵글·리복·코오롱스포츠 등
리버시블 패딩·코트·무스탕 등 선풍

올 겨울 패션 아이템으로 양면을 뒤집어 입을 리버시블(Reversible) 의류가 주목 받는다. 안감과 겉감의 소재를 달리해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포츠 브랜드부터 여성복 브랜드까지 다양한 업체에서 리버시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재킷과 코트, 패딩까지 제품군도 다양하다.

올 겨울 주목 받는 플리스(Fleece) 소재나 고급 퍼(fur) 소재 등을 사용한 제품들이 대표적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여성복 브랜드 지컷은 양면으로 입을 퍼 컬렉션 ‘데이&나잇’을 선보였다. 퍼 디자인에 야상 점퍼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경량 패딩에 리버시블 스타일을 적용한 ‘키퍼 리버시블’을 출시했다. 안감에는 플리스, 겉감에는 나일론 경량 우븐 소재를 적용했다. 특히, 안쪽에 기능성 충전재를



와이드앵글의 리버시블 무스탕 재킷. /와이드앵글



/와이드앵글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한다. 야상형 디자인과 보머 스타일, 코트, 베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됐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헤드는 1990년대에 사랑 받은 헤드의 리버시블 점퍼와 올 시즌 트렌드인 슌다운을 접목한 ‘NCT 턱백 다운점퍼’를 출시했다. 오버사이즈 핏으로 디자인했으며, 밑단을 밴드로 고정해 더욱 풍성하게 입을 수 있다.

스포츠 브랜드 리복은 캐주얼 브랜드 커버넌트와 함께 협업한 ‘벡터 다운 재킷’을 통패딩과 숏패딩, 두 가지 스타일로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리버시블 스타일로 제작돼, 각각의 면에 리복 클래식의 벡터 로고와 커버넌트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최근 무스탕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리버시블 스타일을 적용한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과 여성복 브랜드 보보, 올리브테올리브 등이 관련 제품을 내놨다.

와이드앵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선보인 리버시블 무스탕은 현재까지 전체 물량의 24% 이상이 소진된 정도로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와이드앵글의 리버시블 무스탕은 겉감은 양가죽, 안감은 양털로 제작돼 보온성이 높다. 또 안과 밖의 색상이 달라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 골프웨어를 넘어 일상복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롯데호텔제주 호텔 최대 놀이공간 ‘플레이토피아’

롯데호텔제주가 오는 20일에 국내 호텔 최대 규모의 멀티 놀이 공간 ‘플레이토피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상상 속 꿈의 놀이터를 콘셉트로 조성된 플레이토피아는 ‘플레이(Play)’와 ‘유토피아(Utopia)’에서 이름을 따왔다. 익스트림 어린이 스포츠 클럽 ‘챔피언 R’, 락 볼링장 ‘가인’, VR 체험존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롯데호텔제주는 최근 여행 트렌드로

‘플레이케이션’이 떠오르는데 따라, 플레이토피아를 오픈하게 됐다. 플레이케이션은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편안한 휴식과 동시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이토피아는 패밀리 락 볼링장 ‘가인’은 온 가족이 함께 볼링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레인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총 12개의 레인 중 3개 레인이 키즈 범



롯데호텔제주의 플레이토피아. /롯데호텔제주

퍼 볼링으로 공이 흠에 빠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거터 범퍼가 설치돼 있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볼링을 즐길 수 있다. /랜서 기자